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13:1-11절



변의석 목사
영광침례교회 담임

사랑 장으로 유명한 고전 13:8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마13장52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천국의 씨앗들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런데 사탄도 여전히 가리키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로서 천국의 공간에서 새 것과 옛것을 내 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은 지금 현재 사랑의 삶이고, 옛것은 과거 사랑하며 살아왔던 기억을 되살려서 끄집어내는 사람을 말한다. 과거의 삶은 무조건 은혜로 해석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때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랑할 때가 있다. 떠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다. 제바들도 아무리 애써서 집을 짓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좋아도 다 놔두고 강남으로 떠났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돌아온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께서도 마24장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수님께서도 때를 잘 아셨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절) 1절에 보면 아시고 "안다"는 말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유한한 세상이다. 태어났으면 떠날 때가 있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은 대부분 100세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지나면, 다 이 세상에 더 남아 있지 않을 존재들이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항상 이만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죽을 줄을 아셨고, 또 그때가 가까운 줄 아셨다. 전 3:1,2절 "법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가 있으며" 우리가 만일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1. 때를 아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판 가롯유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가롯유다를 사랑했다. 가롯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가롯유다를 알고 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기

로 마음을 먹었다. 이것이 열정 있는 사랑이다. 2.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마 22:37-39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다. 온전한 사랑은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변호하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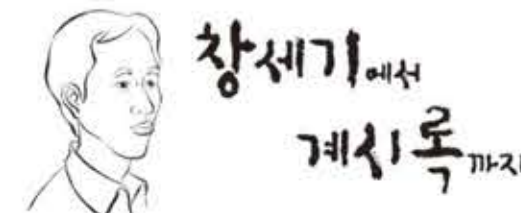
사랑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듯이 다른 사람도 용납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다 하도록 해야 한다. 바울은 빌2:8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3.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4-6절) 이 발이 배반하고 도망갈 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특히 가롯유다의 발을 씻겨준 것이다. CS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로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그렇다. 사랑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중 후렴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렇게 찬양하면서 진짜 사랑해야 할 내 아내 남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일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보느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4:20) 보이는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아셨다. 우리도 때를 알고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이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자신의 삶의 기한을 알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열정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77. 부자와 천국(눅18:18~30)

마19:16~30, 막10:17-30절을 비교해보면 관원이요 부자인 이사람을 마태는 청년(마 19:20)으로 마가는 한 사람(막10:17)으로 소개하는 반면 누가는 관원이라고 말한다. 그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계명들을 제시하셨다. 그런데 21절에 이 청년은 이것들을 다 그것도 어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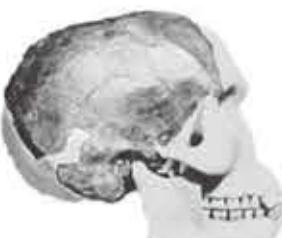
부터 지켰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지 않았음을 들어내 보인다. 이 관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도 몰랐다. 그때 예수님은 22절에 말씀하신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고 그에게 명하신다. 그러나 23절 청년은 심히 근심하더라 했다. 세상의 부와 영생의 길에서 얼마나 갈등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 한국성경학회 회장 겸주전담지부장



▲ 필트다운인 상상도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변호사 찰스 도슨(Charles Dawson)이 필트다운 가까이에서 두 개골과 턱뼈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1912년 11월 21일자 <맨체스터 가디언>과 <이브닝 뉴스>에 게재되었다. 한 달 정도 후인 1912년 12월 18일, 대영박물관 지질학분야 관리자인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Arthur Smith Woodward)와 찰스 도슨(Charles Dawson)이 영국 런던에서 인간의 두개골과 턱뼈를 인류의 조상이라 발표함으로써 필트다운 사기 사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드워드는 필트다운인에게 에오안트로푸스 도스니(Eoanthropus Dawson)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찰스도슨은, 1908년에 런던 남쪽의 서식스(Sussex) 주 필트다운 마을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였다. 필트다운인의 진실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필트다운인이 인류의 조상 화석으로 인정 된지 41년만인, 1953년 11월 21일에 조셉 시드니 위너(Joseph Sydney Wiener) 등의 학자들이 제공한 결정적인 조작 증거들이 <타임스>를 통해서 발표된

으로써, 필트다운인 사기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필트다운인 사기 사건에 대하여 1955년에 조셉 시드니 위너(Joseph Sydney Wiener)가 <필트다운 위조(The Piltdown Forgery)>를 출판하였고, 1990년에는 프랭크 스펜서(Frank Spencer)가 <필트다운: 과학적 위조(A Piltdown Scientific forgery)>와 <필트다운 문서(The Piltdown Papers)>를 출판하였다. <필트다운 문서(The Piltdown Papers)>는 1908~1955년 사이에 필트다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글들과 기록을 모아 놓은 것이다. 2002년에는 <Le mystere de l'homme de Piltdown: Une extraordinaire imposture scientifique>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출판되었으며, 이 책은 2005년에 <인류의

기원을 둘러싼 최고의 사기사건: 필트다운인>이라는 제목(題名)으로 에코리브르 출판사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사기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찰스 도슨이 1916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게 되었다.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 불리는 스코프스 재판이 1925년 7월 21일에 미국 테네시 주에서 열렸는데, 이 재판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어긴, 교사 스코프스에 대한 재판이었다.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었는데, 이 때 진화론 측이 진화

역사전쟁(3)

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필트다운인이다. 결과적으로 필트다운인이 진화론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 후에는 조작으로 밝혀진 것이다.



▲ 필트다운인 두개골을 살펴보는 관계자들, 1915년 존 쿡의 그림(위키피디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서전 · 회고록 · 설교집, 교회사,
요람, 사보, 교회소식지,
동호회집지 등 모든 출판물

도서출판 미션리

한 평생 앞만보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달려온 인생길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틈틈이 기록해 온 글들, 오래된 책상에서 푹 튀어나온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자서전, 회고록 등으로 지나는 삶의 궤적을 남겨 보십시오.

도서출판 미션리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집 · 교회사 · 사보 · 교회소식지 등 어떤 형태의 인쇄물도 언론사 경력 30년이 넘는 전문 편집인이 도와드립니다.

원고정리에서 교정, 편집 · 디자인 · 출판까지 맡겨주세요.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도서출판 미션리 TEL 062-367-9109, FAX 062-367-910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69 (3층) / E-mail : phj2930@nate.com